

계불과삼년(鷄不過三年), 닭은 삼년을 더 질르믄 허믄, 토종은, 이제 양종덜은 멍청헤그네 경안 허주마는, 하, 토종은 삼년을 더 질르믄하면은 사람으로 화 하는 수가 있어.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트망트망 있기 따문 삼년을 더 질르지 말라. 구불과칠년(狗不過七年), 개는 칠년을 더 질르믄 허믄 칠년을 더 질랑은 그것도 또 사름이 되어가지고 거세기 화하는 수가 있어. 옛날 그랬는디, 옛날 우리 한국에서 그말이 어뎡헌 말이산디.

헌 사람이 큰 부재의 집의 닭을 벅머리를 질랴, 요새 모양으로 닭을 질르는다. 그때엔 누게 벨반 사가도 안헝곡 그자 사갈 사람 만약의 이심을 헝면 풀아줍도 헝곡 드러 잡아먹어부려. 잡아먹어부르는다, 닭이 삼년을 더 질르완, 헌 대여섯해 질른 닭도 잇곡, 거기 개도 여남은 해 질른 개도 잇주. 개가 이시니 장닭 귀신이 뉘여가지고 나오라 가지고, 늙은 할으방이 뉘여가지고, 개 보고

“너도 오래 살고, 나도 오래 살았으니 너헝곡 나헝고는 가근하다. 그러니, 주인놈이 괴악헌 놈이라. 내 자손을 많이 잡아먹어부리니까니 내가 억울허여 그러니 그 원수를 갚아야 허겠다.”고.

“그러믄 어뎡 허쿠광?”

“이 주인 타 뎡기는 물이 저 창문뚱에 메어졌지, 그러니 그것을 안장 지우라. 안장 지우믄 허믄 내 타거들랑 닐랑 앞이 상(서서) 물 익꺼그네 저 사굴(蛇窟)로 들어가, 사굴로 들어가 배엄 사는 굴로 들어가자.”

“그 배엄 사는 들어가믄 어뎡헝니까?”

“거기 가져서 사왕안티 가 가지고 이 원수를 갚아 달라곤 해서, 어 가그네 헝켜.”

“뱀이 어뎡 허영 원수를 다 갚아?”

“그 뱀 대죽이 막 들어오믄 허믄 그 놈의 집이 막 에워싸그네 막 물어부리곡 허지 안허느냐.”

“겨믄 경험주.”

개가 이젠 사름이 되어가지고 헝연 물안장을 지우고 몬 허니 그 놈의 닭은 장닭 귀신은 딱 나오란 영감이 되영 타 가전, 나 그리치는대로만 글라.”

드려 그자 산중더레만 올라가. 가당보니 큰 어귀가 있어. 가당보니 배엄이 있었는디, 아 멍석부러기만이헌 배엄이 나오란 떡 있어.

“사왕님, 저 원수를 좀 갚아주십서허니 그 이 저녁 찾아온 바우다.”

“니 원수는 무슨 원수냐?”

“우리 주인놈이 꽤씸스러워 가지고, 내 자손을 몬작 잡아먹어부리니까니 내 하도 청원허여 가지고 사왕님 전(前)에 오란 등장들영 그놈의 집 막 멸종을 시켜줍셴 영 오랴수다.”

“그러지.”

“그 부재로 살지?” 거기 삼해유지, 삼해유, 집어쥔 삼해유가 있지 안하냐?”

“삼해유(三亥油)가 뭇입니까?”

“일년이 해년 해월 해일에 뻥 지름이 이시민 우리는 가지 못한다.”

“그 지름이 이시민 우리는 활동허질 못한다.”

허니,

“아, 그 지름 업수다.”

고 그러거든.

“내 계민 우리가 모릿날은 가겠다. 모릿날은 네 원수를 갚아주겠다. 그중 알라.”

“아, 그리히리다, 고맙수다.”

이젠 집에 돌아오란 그 집은 부재칩이난 장남이 있었주. 그 장남이 꺾어서 말 들으니까니 아  
둑망에서 이거여, 저거여 말소리가 나. 어땡허난 둑이 둑망안에 사름이 무슨 사름이 신고 함명  
들어보니까니 그런 말을 개하고 서로 허듯이,

“모릿날은 사왕이 틀림없이 올게라 올게니까 우리가 잘 대접 헤여야지.”

함명 허염거든. 하 이젠 그 장남이 주인 꺾라 이 말을 곁았거든.

“사실은 이만저만 함연 함염수다.”

“아, 그러냐.”

고, 아 뒷날 아침은 보니 물이 막 땀으로 농가져서. 아이고, 침 물 탕 가 오랴구나게.

“아, 모릿날 전의 둑망을 일절 다 잠가부령 하나 냉기질마랑 막 잡아불라.”고.

막 잡아부렸주. 막 잡앙 먹지못허믄 댁겨 불기도 허곡. 막 잡아부련……. 삼해유 말을 그딴서  
몬딱 그 개하고 이제 그 둑 하르방하고 삼해유만 이놈의 어승을 함민 그 사왕이 들어오민 막 거  
세기 아이 주인, 아 이젠 주인이 꺾마니 생각해 보난, 삼해유가 장판이 밖엔 파는디가 어실거난,  
뒷날랑 장판에 강 사오렌, 장남 꺾라 삼해유를 사오랜 함연, 장판이 간 삼해유를 사단, 으잣에 막  
뿌리를 함연. 뿌려놔두니 모릿날이엔 현 날은 사왕이 오켄 현 그날은 그밤에 배엄이 들어오는다,  
막 그가 떼거지로 세상 천지 배엄은 막 들어오랴. 막 들어오단, 삼해유를 뿌려 노니까니 그 독  
을 맞창허니 몬딱 그자 울 바깳디레 배엄이 스몫 머뭇지기괘게 죽언. 뒷날 아침은 주인이 일어낭  
보난 사름발 디덜틈이서? 막 배엄이 죽언 거시기허연 몬 그때 경헨 뱀 치와난 말이주. 겨나네 계  
불과삼년, 구불과칠년, 옛날엔 그 밖에 더 질르지 말랜 허엿주.

(成啓天, 男·83)